특집논문1

종교적 마음과 사회적 마음: 진화인지적 접근

구 형 찬

Ⅰ. 논의의 맥락

겨울이 오기 전에 프로야구의 한 시즌은 끝난다. 야구팬들은 봄철에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 야구경기가 없는 세상의 무료함을 견뎌야 한다. 극성팬들은 야구경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실 야구경기는 '야구(baseball)'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구증가율'이나 '남녀성비'는 그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문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종교(religion)'의 경우는 어떨까? 종교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도 종교를 찾을 수 있을까? 종교사 및 종교현상학 분야에 축적된 연구 성과들과 '종교' 개념의 역사를 함께 염두에 둔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종교'라는 말에 이미 익숙해진 나로서는, 그 용어를 누가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잘 알려진 '종교들'이 있건 없건 간에, '종교'라는 개념이 통용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말로써 지시할 만한 현상이 전혀 없는 사회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만약 시간과 여비가 넉넉해 세계 어디든 여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종교도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결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가끔씩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Imagine)'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20세기 종교학에서 널리 회자되었던 '종교적 인간', 즉 '호모 렐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라는 용어는 종교성을 하나의 인간 본성으로서 묘사한다. 그 용어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인류의 특정한 경향성을 '종교'라는 범주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종교적 인간'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인간의 경향성은 특정 종교 단체에 속하는지 여부를 뛰어넘어 서술될 수 있다. (종교적) 인간은 일상(日常)을 살지만 때때로 일상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는 특정한 상황에 처할 때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다. 그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균질적이지 않고 분절되어 있으며 위계를 갖는 것으로 경험된다. 그러나 때때로 그 모든 비균질성과 차이는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는 일상과 비일상이 갈마드는 그러한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며 관계를 맺고 하나의 동아리를 이루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동아리에 속한 타인과 협력하면서 내외의 잠재적 위협에 종종 분노하고 강경하게 대응한다.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자아의 위기와 갈등을 심하게 겪기도 한다. 이로 인해 그는 심지어 누구를 죽이거나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다.

인간의 이러한 경향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일까? '종교적 인간'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러한 경향성은 인간의 종교적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동어반복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종교'가 문제의 경향성을 가장 적절히 드러내는 개념일까? 종교라는 개념 없이 위의 경향성을 서술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마음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표방하는 진화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들은 오히려 우리가 '종교'라

는 말의 무게에 눌리지 않을 때 이른바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온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더 적합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탐색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1)]

진화과학과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인류의 종교문화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인지종교학(CSR,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이 자주 언급된다. 비교적 새로운 이 연구 프로그램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진화된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을 많이 이해할수록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문화현상을 더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아직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인지종교학의 연구 성과들은 국내 학계에도 이미 수차례 소개된 바 있고,[2)]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 역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3)]

인지종교학의 주요 관심사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 속에 종교적인 생각, 행동, 표현 등이 널리 퍼져있게 된 이유와 종교적 생각과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지속하는 패턴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때 인지종교학의 상상력은 종교를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는 '종교적 인간'이라는 선험적 개념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종교에 대한 인지적 가설의 '표준 모델(standard model)'[4)]에 따르면, 우리가 '종교'라는 범주를 통해 서술하는 다양한 현상들은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적응들의 부수적인 효과, 즉 부산물(by-product)이며,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이 발생, 전수, 분포하는 양상과 그 인과적 프로세스는 초자연적인 신비의 작용

---

1) Pascal Boyer, *The Fracture of An Illusion: Science and the Dissolution of Relig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참조.

2) 구형찬, 〈종교연구의 방법론적 범주에 관한 고찰: 비교, 분류,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종천, 〈종교와 마음: 인지종교학의 주제와 경향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24,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8 참고. 또한 국내 학술지 《종교문화비평》 통권 14호(2008)에서는 '종교학과 인지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특집이 다루어진 바가 있다. 정진홍, 〈신의 고향은 어디인가? 인지과학의 종교담론에 관하여〉, 《정직한 인식과 열린 상상력: 종교담론의 지성적 공간을 위하여》, 청년사, 2010, 637-664쪽에서는 위의 특집을 바탕으로 인지과학적 종교담론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분석적인 이해를 담아내고 있다.

3) 이창익, 〈신 관념의 인지적 구조: 마음 읽기의 한계선〉, 《종교문화비평》 21, 종교문화비평학회, 2012; 구형찬, 〈멍청한 이성: 왜 불합리한 믿음이 자연스러운가?〉, 《종교문화연구》 19, 한신인문학연구소, 2012; 구형찬, 〈초점화가 이끄는 환기작용: 조선시대 침호두 기우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0, 2016 등이 발표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인지종교학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기도 했다. 구형찬, 〈민속신앙의 인지적 기반에 관한 연구: 강우의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을 참고하라.

4)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ames A. Van Slyke,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Farnham: Ashgate Publishing, 2011, pp. 5-30.

을 전제하지 않아도 설명될 수 있고 종교만을 위한 특수한 인지체계나 뇌의 병리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고도 설명될 수 있다. 즉, 문화 속에 현존하는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많은 특징들은 인간의 종교적 본성에 대한 선험적 가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5]

인지종교학은 어느덧 30년 가까이 나름의 역사를 축적해오고 있다.[6] 그리고 당연히 그동안 연구 질문이 변하고 핵심적인 이론과 방법 및 연구 풍토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변화로서, 과거에 비해 경험연구 즉 실험 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진화와 관련한 이론적 쟁점들이 부각되면서, 종교학을 넘어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학술적 아젠다를 공유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신경심리학(neuropsychology), 실험종교학(experimental science of religion), 현장실험(field experiments), 역사(history),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7] '진화인지종교학(ECSR, Evolutionary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적 담론의 등장,[8] '사회성의 진화'와 종교의 관계를 다루는 진화론적 연구[9] 등을 통해 일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단지 이론과 방법론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개인연구에서 공동연구로 연구의 풍토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진지하게 평가될 만하다.

---

5) 구형찬, 2017, 앞의 글, 84쪽.

6) 국제인지종교학회(IACSR)은 1990년에 출판된 E. Thomas Lawson and Robert McCauley, *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인지종교학(CSR)의 잠정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2014년의 제5회 정기학술대회(biennial meeting)에서 CSR의 역사 25년을 기념했다. 학술대회의 결과물은 다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Luther H. Martin and Donald Wiebe (eds.), *Religion Explained?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After Twenty-five Years*, London: Bloomsbury, 2017.

7) Armin Geertz, "Cognitive Science," in Michael Stausberg and Steven Engl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Study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97–111.

8) Fraser Watts and Léon Turner (eds.), *Evolution, Religion and Cognitive Science: Critical and Constructive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9) Ara Norenzayan, *Big Gods: How Religion Transformed Cooperation and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2013; Pascal Boyer, *Minds Make Societies: How Cognition Explains the World Humans Creat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8.

그러한 흐름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진화사에서 발생한 인간 집단규모의 변화에 주목하여 사회적 마음의 진화와 종교적 마음의 진화의 상관성을 이해하려는 최근의 연구 경향이다.[10] 이 경향은 종교에 대한 진화인지적 연구에서 축적되어 온 중요한 두 가지 발견을 함축한다. 첫째, 오늘날 '종교'라는 개념이 상식적으로 환기시키는 요소들, 즉 사제들이나 성문화된 의례, 그리고 우주론, 종말론, 악의 기원론, 구원론 등이 잘 구비된 교리체계는 인간의 종교적 경향성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앞에서 열거한 요소들은 작은 규모의 수렵채집 사회보다 큰 규모의 사회집단을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잘 관찰되는 특수한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첫 번째 발견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서는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초기부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발견의 함의에 관해서는 근래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성의 진화에 대한 연구 흐름과 더불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두 가지 발견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에서 현대의 종교문화 일부에서 나타나는 순기능만이 아니라 배타성과 사회적 역기능의 문제를 새롭게 이해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Ⅱ.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이론, 방법, 풍토의 변화

1.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전개

10) Pascal Boyer, *Minds Make Societies*, pp. 93–124; Pascal Boyer, *The Fracture of An Illusion*, pp. 9–24; Ara Norenzayan, *op. cit.*; Joseph Henrich, *The Secret of Our Success: How Culture Is Driving Human Evolution, Domesticating Our Species, and Making Us Smart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2015.

이 글에서 '진화인지적 종교연구'는 진화과학과 인지과학의 진전에 힘입어 시도되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종교연구의 흐름을 느슨하게 포괄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대표적인 연구프로그램으로는 인지종교학이 있다.[11]

인지종교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연구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등장했고, '종교에 대한 인지적 이론(cognitive theory of religion)'이라는 말은 1980년부터 사용되었다.[12] 한편, '인지종교학'이라는 표제는 1990년에 토머스 로슨과 로버트 맥컬리의 공저인 《종교 다시생각하기: 인지와 문화의 연결(*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Culture*)》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13]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인지종교학의 학문적 지향을 보여주는 각종 저서들이 출판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면 알타미라 출판사(AltaMira Press)의 '인지종교학총서(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Series)'가 등장했다. 2006년에는 국제인지종교학회(IACS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가 설립되었고, 2013년에는 국제인지종교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인지종교학저널(*Journal for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이 창간되었다. 독립적인 정기 학술대회를 격년 단위로 개최하고 있는 국제인지종교학회는 다양한 학술활동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회원들은 종교학, 심리학, 인지과학 등 몇몇 유관분야의 국제학술대회에도 인지종교학 분야 세션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고전적인 설명 모델과 가

---

11) 진화인지적 종교연구, 특히 인지종교학의 전개와 관련해 이어지는 글의 많은 부분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구형찬, 2017, 앞의 글, 특히 3장 3절)을 발췌 및 재정리해 서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2) Stewart Guthrie,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n," *Current Anthropology* 21, 1980.

13) 한편, CSR(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어로 '인지종교학'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방원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토머스 로슨의 논문 "Towards a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Numen*, vol. 47, 2000)의 번역을 《종교문화비평》 창간호(2002)에 게재하면서 '인지종교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토머스 로슨, 방원일 옮김, 〈종교학의 새로운 경향: 인지종교학〉, 《종교문화비평》 1,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2, 335–349쪽 참고.

설로는 주로 다음의 6가지 정도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댄 스퍼버의 '표상역학(Epidemiology of Representations)' 모델, 스튜어트 거스리의 '애니미즘과 의인주의(Animism & Anthropomorphism)' 가설, 저스틴 배럿의 '과활성 행위력 탐지 장치(Hyperactive Agency Detection Device)' 가설, 로슨과 맥컬리의 '행위표상체계와 의례형식 가설(Action Representation System & Ritual Form Hypothesis)', 파스칼 보이어의 '최소 반직관성과 집합적 적합성(Minimally Counter-intuitiveness & Aggregate Relevance)' 가설, 하비 화이트하우스의 '종교성의 양식(Modes of Religiosity)' 가설 등이 그것이다. 이 6가지 모델 및 가설들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자세히 다루어진 바가 있으므로,[14] 여기서는 각각의 주요 아이디어와 함의만을 되짚어보겠다.

스퍼버의 '표상역학'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특정 양상들이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복수의 원인을 마치 역학조사(epidemiology)를 시행하듯 연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연구에는 진화된 마음이 작동하는 특정한 방식들을 고려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15] 이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나타나는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의 분포와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복수의 인과적 원인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런 작업을 위해 인간마음에 대한 진화과학과 인지과학의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가 함축되어 있다.

거스리의 '애니미즘과 의인주의'에 관한 가설은 인간의 인지체계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행위자의 존재를 탐지하거나 인간의 형상을 지각하는 데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다는 사실을 예증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16] 이와 관련하여 배럿은 인류

14) 이창익, 〈인지종교학과 숨은그림찾기〉, 《종교문화비평》 14,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8; 구형찬, 2017, 앞의 글.
15) Dan Sperber, *Explaining Culture: A Naturalistic Approach*, Oxford: Blackwell, 1996.
16) Stewart Guthrie,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n," *Faces in the Clouds: A New Theory of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조상의 진화적 적응 환경(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edness, EEA)에서 포식자 회피라는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했던 개체들의 특징이 '과활성 행위력 탐지 장치'로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17] 거스리와 배럿의 가설들은 어째서 인간이 특정 행위자의 개입이 없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들에서까지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지에 관한 고전적인 설명모델을 제공한다.

로슨과 맥컬리는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행위표상체계'를 통해 종교의례에 대한 진전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18] 그들의 가설은 종교적 의례가 참여자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행위로서 표상되며,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행위표상체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환기되는 행위자, 피행위자, 도구 등의 표상이 문화적으로 상정된 초인간적 표상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의례의 형식과 의미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이어의 주요 가설은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이 진화된 인지체계들의 부산물로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에 부합하여 주의집중과 향상된 기억효과를 잘 이끌어내는 생각과 행동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널리 퍼지고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19] 이에 따르면, 특정한 생각과 행동의 문화적 성공여부는 인간 조상의 삶에서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고 반복되었던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화된 다양한 인지체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극되고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즉, 진화된 인간의 마음은 적응 문제와 관련된 직관적 기대들을 갖고 있는데, 종교적 생각과 행동이 환기시키는 직관적 기대들과 반직관적인 정보가 결

17) Justin Barrett, "Exploring the Natural Foundations of Relig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4, 2000; *Why Would Anyone Believe in God?* Walnut Creek: AltaMira Press, 2004.

18) E. Thomas Lawson, and Robert N. McCauley, *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Robert N. McCauley and E. Thomas Lawson, *Bringing Ritual to Mind: Psychological Foundation of Cultural For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9) Pascal Boyer, *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2001.

합되는 양상에 따라 기억 및 전달의 효과가 달라지며, 이로 인해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문화적 분포와 빈도가 결정되게 된다. 이는 왜 특정한 종교적 생각과 행동이 더 많은 호소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적 모델을 제공한다.

화이트하우스의 '종교성의 양식' 가설은 진화된 인지체계들 중에서 특히 장기기억 메커니즘이 특정 생각과 행동의 문화적 성패와 전승 양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20] 장기기억의 메커니즘은 반복과 빈도에 의해 활성화되기도 하고 정서적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메커니즘에 잘 부합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잘 기억되고 오래 전승됨으로써 특정한 문화적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교리체계에 비중을 두는 종교성과 강렬한 체험을 중요시하는 종교성의 두 가지 양상이 횡문화적으로 널리 나타나게 되는 이유도 이 가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6가지 모델 및 가설이 기본 토대를 형성하면서 진화인지적 종교연구가 전개되어 왔지만, 현재는 각 가설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적지 않게 축적되고 있으며 연구의 범위도 더 많이 확장되고 체계화되고 있다.[21] 인지종교학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저작들이 출판되었으며, 단지 종교학 분야만이 아니라 심리학, 인지과학, 생물학 관련 학술저널들에도 상당수의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 경향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를 통해 개인연구의 분과 학문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크게 '실험기반의 연구'와 '진화론적 쟁점이 부각되는 연구' 등 두 가지 특징적인 흐름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20) Harvey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 Walnut Creek: Altamira Press, 2004.
21) Martin and Wiebe (eds.), *Religion Explained?* 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일견할 수 있다.

2. 실험기반 연구의 강조

실험기반 연구와 경험적 데이터가 갖는 중요성은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고전기'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험연구(empirical researches)에 직접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첫 번째 변화의 흐름에 자극을 준 연구로 평가할 수 있는 저작으로는 인지종교학자 디미트리스 지갈라타스(Dimitris Xygalatas)의 《불타는 성인들(*The Burning Saints: Cognition and Culture in the Fire-walking Rituals of the Anastenaria*)》(2014)이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으로서 그리스 북부 지역의 정교회 신자들이 행하는 연례적인 페스티벌에 대한 인류학적, 심리학적, 생리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특히 성상을 운반하고 뜨거운 불 위를 걸으며 춤추는 '불 걷기(fire-walking)' 의례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신경생물학적 요인들을 정서적이고 생리학적인 고양상태에 대한 실험적 데이터와 연결을 지어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불타는 성인들》에서 이루어진 지갈라타스의 시도가 인류학적 현지조사와 실험연구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타진한 것이라면, 그의 아이디어와 이론 및 방법론적 과제를 중점연구과제로 삼아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들은 이후 지갈라타스 자신이 깊이 관여하기 시작한 동아프리카의 도서국가 마우리티우스(Mauritius)의 말렉카연구실(MALEXA: The Mauritian Laboratory for Experimental Anthropology)과 체코 브르노(Brno)의 마사리크 대학 종교학과에 설립된 레비나연구실(LEVYNA: Laboratory for Experimental Research of Religion)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공동연구의 형식으로 추진되는 본격적인 실험기반 연구들은 고위 인지(higher cognition)에 속하는 종교 관련 논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더 하위 수준의

가설을 구축하고 이를 반복 가능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저명한 생물학 저널(*Current Biology*)에 게재된 마틴 랭(Martin Lang) 및 그 동료들의 연구는 의례적 행동을 일종의 위험예방체계(hazard precaution system)와 관련해 설명하는 기존의 유력 가설을 비판적으로 보완하는 시도로서, 불안(anxiety) 상황을 실험적으로 조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복 행동패턴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모션캡쳐(motion-capture) 기법을 이용해 탐구했다.[22] 불안 상황의 조작 여부는 피험자들이 인지적 자원을 어떤 과제에 할당하는지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주어진 행동과제의 수행 패턴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한 차이는 의례적 행동이 의식적으로 큰 집중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거의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반복행동처럼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인류학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험기반 연구가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진화인지적 종교연구가 인지종교학이라는 특정 연구프로그램의 틀을 넘어 신경과학, 컴퓨터과학, 진화심리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진화인류학과 같은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종교와 관련된 질문을 공유하면서 협업하는 연구풍토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주된 연구 분야가 다르더라도 인식론적 전제가 모순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과 연구 아젠다를 공유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진화론적 쟁점의 부각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최근 흐름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진화론적 쟁점

22) Martin Lang, et al., "Effects of Anxiety on Spontaneous Ritualized Behavior," *Current Biology* 25(14), 2015.

을 부각시키는 연구들이다. 진화인지적 종교연구가 추구하는 진화론적 접근은 단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다시 소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학술적 기획이라는 점에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회진화론적 가설들과 20세기 후반 이래로 지금까지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윈주의와 신다윈주의에 입각한 진화론적 종교 담론들 사이에는 커다란 이론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23)]

자연선택, 성선택, 개체군 사고 등 다윈주의 진화론을 구성하는 핵심 아이디어들은 사실 찰스 다윈의 당대에도 매우 논쟁적이었기 때문에 학계에 일반적으로 수용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려야 했다. 20세기 초까지 사회진화론적 가설과 구별되지 않는 다양한 문화진화 가설이 널리 유행하다가 혹독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당대 학계의 이러한 인식론적 한계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다윈주의 진화론은 발전된 유전학과의 '현대적 종합'을 통해 현대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나아가 20세기 말의 진화과학은 진화생물학에 집중되어 있던 논의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인류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가설적 설명모델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마음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진화심리학과 인지과학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몇몇 분야들 즉, 언어학, 역사학, 철학, 인류학, 종교학, 문학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1세기의 진화론적 종교 이론의 맥락은 이처럼 바로 생물학적 진화론의 확장된 설명모델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종교학계에는 여전히 이 주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학술적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한국에서 검토되어 온 종교학사에서는 진화

23) Armin W. Geertz (ed.), *Origins of Religion, Cognition and Culture*, Durham: Acumen, 2013 참조.

론적 종교 이론이 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지성계의 특수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즉, 한국 종교학계에서는 생물학적 진화론의 전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입각해 진화론적 종교 이론의 가능성, 쟁점, 함의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초기 종교학사에 등장하는 진화론에 대한 논의들은 찰스 다윈의 포괄적인 이론보다는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진화론이 인종차별주의, 파시즘, 나치즘, 식민주의의 약육강식 논리를 옹호한다는 비판과 함께 학술적 담론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됨과 동시에, 진화론적 종교 이론 역시 더 이상 깊이 있게 다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머무른다면 20세기말과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진화론적 종교 이론의 주요 쟁점과 함의에 적절히 접근할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인지종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흐름이 소개되면서 한국의 종교학에도 이전에 비해 보다 진전된 관점에서 진화이론의 함의를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인지종교학 연구자들은 다윈주의 진화론의 핵심 아이디어인 자연선택, 성선택, 개체군사고 등을 신다윈주의적 관점에서 적극 수용하면서 새로운 연구 질문과 연구 아젠다를 생산하고 있다.[24] 당연하게도 그 과정에서 진화론적 주요 쟁점들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는 연구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진화인지종교학(Evolutionary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들, 그리고 '친사회적 종교'의 탄생에 대한 진화론적 가설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두드러진다.

'진화인지종교학'이라는 용어는 2011년에 국제학술지 《종교(*Religion*)》 41(3)에

24) 인지적 표준모델에서 다루던 개체군사고와 자연선택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다윈의 성선택 모델에 비추어 종교연구를 시도하는 흐름도 발견된다. D. Jason Slone and James A. Van Slyke, *The Attraction of Religion: A New Evolutionary Psychology of Religion*, London: Bloomsbury, 2015 참조.

실린 슬링거랜드(Edward Slingerland)와 불불리아(Joseph Bulbulia)의 "Introductory Essay: Evolutionary Science and the Study of Religion"이라는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연구 흐름을 조망하는 논문모음집이 《진화, 종교, 인지과학(*Evolution, Religion, and Cognitive Science*)》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바 있다.[25] 종교학, 신학, 과학사 및 과학철학, 진화생물학, 인지신경과학, 심리학, 사회인류학, 사회학, 인공지능, 인지종교학 등의 전문가들이 글쓴이로 참여한 이 책에서 우리는 '진화인지종교학'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주요 아이디어들과 가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할 수 있다.

진화인지종교학의 옹호자들은 종교연구가 '진화'라는 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학술적 아이디어와 가정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일종의 '다각적 연구 프로그램(Multi-Faceted Research Programme)'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초창기 인지종교학 역시 '진화'의 논제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진화된 인지체계의 작동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종교연구를 위해 '진화'가 환기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논점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종교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적응적 형질의 복합적 작용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적 요소들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연구하는 다각적인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특징, 그런 특징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인지체계들에 대한 경험적 증거, 인지체계들의 유전적 토대, 그리고 인지체계들이 지닌 적응적 이점에 관한 가설들이 모두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진화, 종교, 인지과학》의 공동 편집자인 레온 터너(Lêon Turner)는 서문에서

25) Fraser Watts and Léon Turner (eds.), *Evolution, Religion and Cognitive Science: Critical and Constructive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진화인지종교학'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함의와 쟁점을 간략히 정리하고 인지종교학 및 진화인지종교학에 가해지는 학계의 비평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 비평들은 크게 서너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진화인지적 종교연구를 뒷받침하는 심리학적 방법과 모델과 관련한 전문적인 난점들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는 주로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것으로서, 진화인지적 접근의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반–종교적 태도에 관한 비판이다. 셋째는 주로 사회인류학이나 문화인류학 진영에서 나오는 비평인데, 종교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문화현상을 생물학, 심리학, 인지과학의 이론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을 담고 있다. 여기에 '진화이론' 특히 '진화심리학'을 둘러싼 논쟁을 염두에 둔 비평이 추가적으로 언급된다. 터너는 이러한 비평들에 함축된 문제제기들이 진화인지종교학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성' 혹은 사회적 마음의 진화와 종교의 진화에 대한 가설을 다루는 연구도 진화이론이 부각되는 최근의 연구경향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심리학자 아라 노렌자얀(Ara Norenzayan)의 《거대한 신들(*Big Gods*)》(2013)[26]이나 진화인류학자 조지프 헨리크(Joseph Henrich)의 《인류 성공의 비밀(*The Secret of Our Success*)》(2015)[27]과 같은 저서를 통해 일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저서들에는 저자가 참여하거나 유관분야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로 시행한 여러 편의 실험기반 연구들이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종교적 생각과 행동이 근원적으로 그 자체로 진화적 적응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를 통해 갖춰진 인지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과 같은 것이라는 인지종교학의 표준적인 가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

26) Ara Norenzayan, *Big Gods: How Religion Transformed Cooperation and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2013; 한국어 번역서로 다음을 참조할 것. 아라 노렌자얀, 《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홍지수 옮김, 김영사, 2016.

27) Joseph Henrich, *The Secret of Our Success: How Culture Is Driving Human Evolution, Domesticating Our Species*, and Making Us Smart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2015.

이 연구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부산물로서 등장한 문화적 변이인 다양한 종교적 믿음과 실천이 그 자체로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진화 및 집단의 상대적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인과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된 '감시자 신(watching God)'이나 '도덕적 신(moral God)' 관념으로 묘사될 수 있는 특정한 부류의 종교적 표상들이 지난 약 12,000년간 이루어진 인간 집단 규모의 확장 과정과 밀접한 인과적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며, 이로부터 사회성의 진화와 종교의 진화를 결부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진화인지적 종교연구가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여러 진화론적 쟁점들 중에서 특히 적응주의–부산물이론 논쟁에 대해 살펴보면서 현재의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적응주의–부산물이론 논쟁은 문화진화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이론, 방법, 풍토의 현재 동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인식론적 기반이 된다.

Ⅲ. 종교는 적응인가 부산물인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등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힘입어 문화와 종교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고전적인 종교학의 논의와 비교할 때 매우 새로운 방식의 종교담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인류 종교사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과 전문적 지식을 광범위하게 축적해온 종교학적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본다면, 그 모든 접근들이 동일한 정도의 설득력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

러나 그 중의 일부는 단지 새로움을 넘어 다른 과학적 지식들과의 무모순성과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이 가능한 가설을 다룬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또, 이러한 연구들은 인류의 종교사 일반에 관한 체계화되고 반성적인 연구들의 축적된 성과를 발전적으로 되살펴보게 하는 유용한 인식의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다양한 자연주의적 접근들의 설득력과 가치 및 특징들을 서로 구별하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28]

예컨대,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의 한 부류는 주로 특수한 종교경험에 대한 신경과학적 분석을 통해 종교를 설명하고자 한다. 일종의 신경 병리학적 관점에서 뇌의 측두엽 간질과 '신비체험'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라마찬드란(V. S. Ramachandran)의 논의를 예로 들 수 있다.[29] 이런 접근은 왜 종교사에서 신비체험이 특정한 종교전통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신비체험이 매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경험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이 접근의 관점에서 볼 때, 신비체험은 특수한 신경학적 조건이 형성되기만 하면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다. 즉, 종교적 신비체험은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신경 병리학적 현상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이 종교적 신비체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이 왜 흔히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또 인간의 종교문화가 단지 특별한 소수의 특수한 경험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접근의 설명력이 갖는 적합성의 범위는 명백히 제한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지종교학으로 대변되는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주요 관

28) Ⅲ장에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구형찬, 2017, 앞의 글, 특히 3장 2절)의 내용을 발췌해 재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9) V. S. Ramachandran and Sandra Blakeslee, *Phantoms in the Brain: Probing th Mysteries of the Human Mind*,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8.

심은 소수의 특수한 경험보다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널리 분포하는 인간의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일반적 양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심은 결국 인간의 종교성이 횡문화적으로 확인되는 일반성을 갖게 된 것은 종교성 자체가 진화과정을 통해 형성된 일종의 적응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진화론적 질문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인지종교학을 중심으로 한 진화인지적 종교연구 분야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입장은 인간의 종교적 생각과 행동은 그 자체로 적응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진화된 적응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진화이론의 전체 흐름을 고려할 때 인지종교학의 이러한 관점은 적응주의–부산물 논쟁이라고 하는 매우 첨예한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일부 학자들은 종교를 일종의 진화적 적응(adaptation)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30] 즉 종교가 인간 개체, 유전자, 혹은 집단의 생존과 번식 혹은 적합도 향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연선택되어 나타난 진화적 설계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것이다. 개체 수준에서든, 유전자 수준에서든, 집단 수준에서든 자연선택에 따른 생물학적 적응의 관점에서 종교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적응주의적 접근들은 종교의 적응적 가치와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31] 둘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종교학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에 의하면 '종교'는 분명한 실체가 아니라 인간 삶과 문화의 특정한 양상들을 서술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이차적인 개념 범주일 뿐이다.[32]

---

30) 참고로, 일찍이 조지 C. 윌리엄스는 진화적 적응이라는 말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하게 자연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George C. Williams, *Adaptation and Natural Selection: A Critique of Some Current Evolutionary Th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31) 장대익, 〈종교는 스팬드럴인가? 종교, 인지, 그리고 진화〉, 《종교문화비평》 14,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8, 17쪽.

32) Jonathan Z. Smith,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따라서 그 자체로 인간 조상의 환경을 고려하며 선택압이나 적응을 논의할 수 있는 고정된 대상으로서 '종교'나 종교의 '본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적응주의적 입장과 가장 강력하게 대립하는 입장으로서 '부산물 이론(byproduct theory)'이 있다. 적응이나 부산물은 해당 형질이 유기체의 생존이나 번식을 위한 직접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가령, 포유류의 탯줄이나 혈액은 분명한 적응이지만, 배꼽이나 피의 붉은 색은 그러한 적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산물이다.

부산물 이론의 관점에서 종교를 보는 입장은 오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진화한 서로 다른 다양한 인지적 프로세스들이 겹쳐 작용함으로써 종교적인 표상들이 발생하고 직관적인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파스칼 보이어(Pascal Boyer)의 논의가 대표적이다.[33] 보이어는 풍부한 인류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도화된 몇몇 성립종교를 기준삼아 인류의 종교문화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통일된 하나의 총체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매우 분산된 현상들이므로 그것을 일종의 패키지처럼 취급하거나 하나의 생물학적 적응으로 간주할 수 없다.[34]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 마음에서 작동하는 행위자 탐지체계, 대상의 심리적 · 물리적 · 생물학적 상태를 파악하는 직관적 추론체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추론체계, 오염 회피체계, 기억체계 등의 다양한 인지체계들은 자연선택과 생물학적 적응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

보이어는 종교문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관념이나 의례적 행동이 이러한 다양한 적응적 인지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33) Pascal Boyer, *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2001.
34) Pascal Boyer, *The Fracture of An Illusion*.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이나 의례적 행동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인지체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이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에 쉽게 기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생각과 행동의 양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여러 인지체계들의 작동방식에 보다 잘 부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도 더 쉽게 기억되고 환기된다. 그런 점에서 보이어의 부산물 이론은 다양한 인지체계들을 염두에 둘 때 평가할 수 있는 '집합적 적합성(aggregate relevance)'을 통해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발생과 문화적 성공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부산물 이론은 앞에서 언급한 적응주의적 접근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실의 종교문화가 단지 인지적 비용이 적게 드는 생각과 행동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산물 이론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역시 간과될 수 없다. 인지적 고비용의 종교 현상에 대한 설명은 부산물 이론을 표준적인 설명 모델에 포함시키고 있는 인지종교학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고 있다.[35]

이와 같이 현대 진화이론의 '적응—부산물 논쟁'이라는 주제는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에도 중요한 쟁점들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이 주제는 진화이론의 쟁점을 염두에 둔 새로운 연구 동향과도 연결되고 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에서 적응—부산물 논쟁은 종교적 생각과 행동이 적응적 형질의 부산물이라고 보는 인지종교학의 '표준모델'과 대립하는 적응주의

35) 특히 인지종교학자 하비 화이트하우스(Harvey Whitehouse)의 '종교성의 양태(modes of religiosity)' 이론은 '인지적 최적성'의 종교 양태와 '인지적 고비용'의 종교 양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Harvey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 Walnut Creek: Altamira Press, 2004 참조.

자들과 유전자–문화 공진화론자들의 온건한 반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인간의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이 진화된 인지적 메커니즘의 부산물일지라도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일단 '종교'를 형성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적응적인 기능을 논의할 수 있고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적응주의적 이론의 관점과 부산물 이론의 관점은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의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를 형성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적응주의 관점에 무게를 둔 연구들은 종교의 궁극적 기원에 관한 질문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며, 부산물 관점에 비중을 둔 연구들은 종교의 확산, 변형, 지속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근연적 메커니즘에 보다 주목한다.

셋째, 적응주의와 부산물 이론 논쟁은 그 틈새를 공략하는 유전자–문화 공진화의 입장에서 종교의 진화를 친사회성(pro-sociality)의 진화와 연계해 이해해볼 여지를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대규모 사회문명의 등장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감시하는 높은 위계의 신격에 대한 신앙을 갖는 종교들의 등장과 상호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즉,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주요 가설들은 진화이론 전체와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갖는 적응–부산물 논쟁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적응–부산물 논쟁은 이미 진화이론 일반에서도 매우 첨예한 논쟁을 형성한 이력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종교를 둘러싼 적응–부산물 논쟁은 선택의 단위를 개체나 유전자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도적인 관점과 집단 선택을 주장하는 관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생물학 및 생물철학 분야의 논쟁에 종교학자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지점일 수도 있다.

Ⅳ. 사회적 마음의 진화와 종교문화

인간의 종교적 경향성을 일종의 적응으로 본다는 것은 그러한 경향성을 지닌 개체들(집단선택론에서는 집단들)이 인간 조상이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환경적 조건에서 살아남고 번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함축한다. 이와 달리, 부산물이론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성 자체가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경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위의 여러 인지적 메커니즘들은 중요한 적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단순히 진화과학의 이론적 쟁점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종교학의 고전적인 논제 중 하나인 '종교적 인간'의 현대적 함의를 재고하게 해준다. 즉, 이러한 두 관점은 인간의 종교성을 일종의 신성한 기원(divine origin)을 상정하지 않고도 논의할 수 있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첫째 적응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본유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로 진화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인간 종교성의 적응적 가치는 일차적으로 인간 조상의 환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적 과거에서 적응적이었던 것이 오늘날의 변화된 환경에서도 동일한 적응적 가치를 가진다고 봐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가령, 당분과 지방에 대한 선호는 인류 조상의 척박한 환경에서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적응적 가치에 의해 진화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선호가 비만과 동맥경화를 야기하는 부적응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유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종교성으로 표현되는 특정한 경향성이 현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과연 적합한 것인지를 되묻게 해준다.

둘째, 부산물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인간의 종교성으로 간주하는 특정한 경향성이 반드시 '종교'라는 개념을 통해 서술되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종교'는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성적 특징이 아니라 인간 삶의 특정한 양상들을 서술하면서 발생한 이차적인 범주다. 오히려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실제로 보유하게 된 하위의 적응적 기능들을 서술하고 그 고유의 작동방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고 넓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위의 적응적 기능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 조상의 환경에서 적응적이었을지 몰라도 현대인이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때 인간 삶의 양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진화인지적 종교연구가 제공하는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현대 사회의 종교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배타성과 사회적 역기능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리라 생각된다. 사실 '사회'는 초창기 종교학에서부터 매우 핵심적인 논제를 형성해왔다. 집단표상의 측면에서 사회와 종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았던 에밀 뒤르켐의 논의, 사회를 개인의 실존적 관념적 차원의 확장으로 보았던 막스 베버의 논의, 종교경험이 표현되는 양상을 이론적, 실천적, 사회적 표현으로 구분하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서술했던 요아킴 바흐의 논의, 사회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피터 버거의 논의 등을 포함하여, '사회'에 대한 관심은 고전적인 종교학의 중심주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학적 거대이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문화의 현실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선의 도구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이를 설명하는 인식론적 도구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에 함축된 적응—부산물 논쟁의 쟁점은 단지 인간의 종

교성, 즉 종교적 마음의 진화와 그 작동방식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성, 즉 사회적 마음(social minds)의 진화와 그 작동방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함의를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유력한 진화론적 가설에는 인간 사회성의 진화를 인간 조상의 적합도 향상의 요인으로 보는 적응주의적인 관점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부적인 강조점의 차이를 염두에 둘 때, 사회적 마음의 진화에 대한 고려는 현실의 종교문화가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접근하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사회성이 일종의 진화적 적응이라고 할 때, 부산물 이론의 관점에 의해 그것은 '종교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적응적 기능의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성' 자체가 하나의 모듈이 아니라 하위의 다양한 적응적 기능들로 구성된 복합형질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는 사회적 마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요청하는 세부적인 연구 주제들을 분할시켜 준다.

이러한 접근은 종교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상황과 부적응적 사회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타인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갈등하는 행동 패턴에는 다양한 기능적 모듈들이 작동하며 편향과 편견을 작동시킨다. 내집단에 대해 친사회적 순기능을 갖는 마음의 체계가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지각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마음의 중층적인 작동방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현실의 종교문화가 발생시키는 다양한 이슈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만약 인간 조상의 환경에서 형성된 인간의 사회성이 수렵채집사회의 집단규모에 특화된 적응적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면, 글로벌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개인 간, 집단 간,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그러한 사회성이 여전히 적응적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인지도 더불어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최근의 진화과학과 인지과학은 사회적 마음의 진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생산하고 있다. 인간의 사회성은 유전적 근연도와 무관한 개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자연선택과 성선택, 친족 선택, '생애사적 자원 배분'[36] 등 진화론의 기본적인 논제를 넘어서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의 탐구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뇌의 진화,[37] 대뇌 신피질 비율(neocortex ratio)과 집단 크기의 상관성,[38] 이타성과 호혜적 이타주의의 진화, 협력과 친사회성의 진화, 집단정체성과 내집단 편향 등의 사회인지적 기제, 도덕 판단과 도덕적 행동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마음의 체계[39]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주요 연구자 중 한 명인 파스칼 보이어는 최근의 저서 《마음이 사회를 만든다》에서, 사회적 마음의 진화에 대한 연구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40] 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그토록 많이 믿을까? 왜 사람들은 정치적 지배를 감내할까? 왜 사람들은 집단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일까? 무엇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는 걸까? 다른 가족 모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왜 인간은 그렇게도 협력적이지 않을까? 한편, 왜 인간은 그토록 협력적인가?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을까? 도덕성을 어떻게 설명

---

36) 한정된 자원을 성장, 번식, 양육 등 생애사의 주요 단계들에 배분하여 투자하는 진화적 전략을 의미한다.

37) Matthew D. Lieberman, *Social: Why Our Brains Are Wired to Connect*, CrownPublishingGroup(NY), 2013;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최호영 옮김, 시공사, 2015.

38) Robin Dunbar, *Grooming, Gossip and the Evolution of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39) Jonathan Haidt,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itics and Religion*, Penguin Books Ltd, 2012; 《바른마음: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왕수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14; Daniel M. Wegner, Kurt Gray, *The Mind Club : Who Thinks, What Feels, and Why it Matters*, PenguinGroupUSA, 2016;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마음의 비밀》, 최호영 옮김, 추수밭, 2017.

40) Pascal Boyer, *Minds Make Societies: How Cognition Explains the World Humans Creat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8 참조.

할 것인가?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통제하는가? 왜 사람에게는 종교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한국 사회의 종교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 위의 질문들은 이른바 '종교적 인간'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의 종교문화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결코 개별 종교의 교리나 이념적 주장에 대한 탐구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다.

진화인지적 종교연구가 종교적 마음과 사회적 마음을 별도로 다루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인간 마음은 다양한 심리적/인지적 기제들을 기초로 작동하며 종교나 사회도 그러한 기제들의 종합적인 작용과 더불어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진화인지적 종교연구가 인간이 지닌 종교적 마음과 사회적 마음의 밝은 면만을 강조해야 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미 일상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종교성과 사회성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성과 사회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낭만적 기대가 아니라 과거의 진화과정이 만들어낸 마음의 작동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Ⅴ. 나가며

진화인지적 종교연구는 지금까지 이른바 '호모 렐리기오수스'에 대한 선험적 가정이나 '세계종교'에 대한 역사학적 관심을 '인류의 종교문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미의 인간학적 관심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종교의 공식적인 '교리', '역사', '전통'만으로 다 포착되지 않는 종교적 삶의 일상적 현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다양한 문제의식, 이론, 연구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런 성과를 위해 인문학 하위의 분과학

문의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을 일정부분 포기하고 보다 다양한 과학적 발견과 이론적 가설을 탐색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화인지적 종교연구는 단지 종교연구에 특정 과학이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종교학, 인류학,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성과들을 통합적으로 참조하여 종교의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 분과학문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서 소통하고 있는 학계에 보다 유의미한 과학적 가설을 제시하고 학술적 논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이러한 시도들은 진화과학과 인지과학 제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쟁점이 함축되어 있는 가설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쟁점을 둘러싼 가설들이 여타의 과학적 발견들과 이론적 가설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과연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함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준거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진화인지적 종교연구의 최근 동향을 리뷰하면서 발견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글을 끝맺고자 한다. 진화인지적 종교연구가 묻고 있는 질문들은 이제 결코 한 명의 개인 연구자, 하나의 분과학문이 감당할 수 없다. 울타리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하며 서로 논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진화과정을 통해 갖추어진 우리의 제한된 이성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마음의 일부다.[41]

---

41) Hugo Mercier and Dan Sperber, *The Enigma of Reas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참조.

_구형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논문으로 〈민속신앙의 인지적 기반에 관한 연구: 강우의례를 중심으로〉, 〈멍청한 이성: 왜 불합리한 믿음이 자연스러운가〉, 〈'인간학적 종교연구 2.0'을 위한 시론: '표상역학'의 인간학적 자연주의를 참고하며〉 등이 있다.
koohc1@gmail.com

참고문헌

구형찬, 2006, 〈종교연구의 방법론적 범주에 관한 고찰: 비교, 분류,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2, 〈멍청한 이성: 왜 불합리한 믿음이 자연스러운가?〉, 《종교문화연구》 19, 한신인문학연구소.

_____, 2016, 〈초점화가 이끄는 환기작용: 조선시대 침호두 기우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0, 종교문화비평학회.

_____, 2017, 〈민속신앙의 인지적 기반에 관한 연구: 강우의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종천, 2008, 〈종교와 마음: 인지종교학의 주제와 경향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24,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이창익, 2008, 〈인지종교학과 숨은그림찾기〉, 《종교문화비평》 14, 한국종교문화연구소.

_____, 2012, 〈신 관념의 인지적 구조: 마음 읽기의 한계선〉, 《종교문화비평》 21, 종교문화비평학회.

장대익, 2008, 〈종교는 스팬드럴인가? 종교, 인지, 그리고 진화〉, 《종교문화비평》 14, 한국종교문화연구소.

_____, 2017, 《울트라소셜: 사피엔스에 새겨진 '초사회성'의 비밀》, 휴머니스트.

정진홍, 2010, 《정직한 인식과 열린 상상력: 종교담론의 지성적 공간을 위하여》, 청년사.

Barrett, Justin, 2000, "Exploring the Natural Foundations of Relig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4*.

_____, 2004, *Why Would Anyone Believe in God?* Walnut Creek: AltaMira Press.

Boyer, Pascal, 2001, *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파스칼 보이어, 2015, 《종교, 설명하기》, 이창익 옮김, 동녘사이언스.

_____, 2010, *The Fracture of An Illusion: Science and the Dissolution of Relig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_____, 2018, *Minds Make Societies: How Cognition Explains the World Humans Creat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Cosmides, Leda & John Tooby, 2016, "Adaptations for Reasoning about Social Exchange," in David M. Buss (ed), *The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2nd Edition, Volume 2, Hoboken: Wiley.

Dunbar, Robin, 1998, *Grooming, Gossip and the Evolution of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eertz, Armin W. (ed.), 2013, *Origins of Religion, Cognition and Culture*, Durham: Acumen.

Guthrie, Stewart, 1980,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n," *Current Anthropology* 21.

_____, 1993, Faces in the Clouds: A New Theory of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idt, Jonathan, 2012,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itics and Religion*, Penguin Books Ltd; 조너선 하이트, 2014, 《바른마음: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웅진지식하우스.

Henrich, Joseph, 2015, *The Secret of Our Success: How Culture Is Driving Human Evolution, Domesticating Our Species, and Making Us Smart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Lang, M. et al., 2015, "Effects of Anxiety on Spontaneous Ritualized Behavior," *Current Biology* 25(14).

Lawson, E. Thomas and Robert N. McCauley, 1990, *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eberman, Matthew D., 2013, *Social: Why Our Brains Are Wired to Connect*, CrownPublishingGroup(NY); 매튜 D. 리버먼, 2015,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최호영 옮김, 시공사.

Martin, Luther H. and Donald Wiebe, 2017, *Religion Explained?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After Twenty-five Years*, London: Bloomsbury.

McCauley, Robert N. and E. Thomas Lawson, 2002, *Bringing Ritual to Mind: Psychological Foundation of Cultural For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rcier, Hugo and Dan Sperber, 2017, *The Enigma of Reas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위고 메르시에 & 당 스페르베르, 2018,《이성의 진화》, 최호영 옮김, 생각연구소.

Mayr, Ernst, 1982, *The Growth of Biological Thought: Diversity, Evolution, and Inheritan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Norenzayan, Ara, 2013, *Big Gods: How Religion Transformed Cooperation and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아라 노렌자얀, 2016,《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홍지수 옮김, 김영사.

Pinker, Steven, 2002, *The Blank Slate: The Modern Denial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Ramachandran, V. S. and Sandra Blakeslee, 1998, *Phantoms in the Brain: Probing th Mysteries of the Human Mind*,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Richerson, Peter J. and Robert Boyd, 2005, *Not By Genes Alone: How Culture Transformed Human 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harpe, Eric J., 1994, *Comparative Religion: A History*, Second Edition, Bristol Classical Press.

Slingerland Edward and Joseph Bulbulia, 2011, "Introductory Essay: Evolutionary Science and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41*(3).

Slone, D. Jason and James A. Van Slyke, 2015, T*he Attraction of Religion: A New Evolutionary Psychology of Religion*, London: Bloomsbury.

Smith, Jonathan Z., 1982,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2004,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of Relig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perber, Dan, 1975, *Rethinking Symbolis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6, *Explaining Culture: A Naturalistic Approach*, Oxford: Blackwell.

Stausberg, Michael and Steven Engler (eds.), 2016, *The Oxford Handbook of the Study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rigg, Roger and Justin L. Barrett (eds.), 2014, *The Roots of Religion: Exploring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Farnham: Ashgate.

Tylor, Edward Burnett, [1871] 2010,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 Slyke, James A., 2011,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Farnham: Ashgate Publishing.

Watts, Fraser and Léon Turner (eds.), 2014, *Evolution, Religion and Cognitive Science: Critical and Constructive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egner, Daniel M., Gray, Kurt, 2016, *The Mind Club : Who Thinks, What Feels, and Why it Matters*, PenguinGroupUSA; 대니얼 웨그너 & 커트 그레이, 2017,《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마음의 비밀》, 최호영 옮김, 추수밭.

Whitehouse, Harvey, 2004,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 Walnut Creek: Altamira Press.

Williams, George C., 1966, *Adaptation and Natural Selection: A Critique of Some Current Evolutionary Th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ilson, Edward O., 1978, *On Human Na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Xygalatas, Dimitris, 2014, *The Burning Saints: Cognition and Culture in the Fire-walking Rituals of the Anastenaria*, London: Routledge.

국문초록

종교에 대한 진화인지적 연구 프로그램은 20세기 종교학의 핵심어 중 하나인 '호모렐리기오수스'의 함의를 재정립한다. 즉, 종교성은 하나의 독자적인 인간 본성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거나 부산물이며 진화된 심리기제와 인지적 제약을 토대로 발현된다. 인지종교학으로 대표되는 진화인지적 접근은 어느덧 30년 가까이 나름의 역사를 축적해왔으며, 당연히 그동안 연구 질문이 변하고 핵심적인 이론과 방법 및 연구 풍토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변화로서, 과거에 비해 경험 연구와 실험 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진화와 관련한 이론적 쟁점들이 부각되면서, 종교학을 넘어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학술적 아젠다를 공유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 논문은 종교에 대한 진화인지적 접근의 최신 연구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적응주의–부산물이론 논쟁의 함의를 바탕으로 하여 종교적 마음과 사회적 마음의 진화에 대한 더 심화된 연구를 촉구한다.

주제어: 진화, 인지, 종교적 마음, 사회적 마음, 인지종교학, 적응, 부산물

Abstract

Religious Minds and Social Minds : Evolutionary-Cognitive Approaches

Koo, Hyung Chan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Evolutionary-cognitive research programmes on religion have been reached to the point of redefinition of the term, homo religiosus, which is one of the crucial words in the field of the study of relig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religiosity" is not a *sui generis* human nature, but a product or by-product of the evolution processes, and is expressed on the basis of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s and cognitive constraints.

The evolutionary-cognitive approach, mainly represented by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has accumulated the various achievements during last 30 years of its own history. Its research questions, core theories, methodologies and eventually the research trends have been changed accordingly. The noticeable changes in this area consist of the following three factors: the significance of empirical study and experiment-based research are emphasized; the theoretical issues on the topic of "evolution" are also highlighted; the research agendas on this perspective are shared by various scholars of diverse fields, not limited only in religious studies.

This article scrutinizes the recent research trends in the evolutionary and cognitive approaches to religion and calls for further researches into the evolution of religious minds and social mind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adaptationist–byproduct debates.

Key Words: evolution, cognition, religious minds, social minds,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adaptation, by-product

투 고 일: 2019. 01. 14
심 사 일: 2019. 02. 06
게재결정일: 2019. 02. 18